



단비교육법을 통해 수업중인 양주 덕계중학교에서 공동연구자인 남유영 교사가 학생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 배우고 싶은것 가르치는 '공자 단비교육법' 큰 성과

## 성신여대, 교수법 토론회

학생 스스로 배우고 싶은것 교육 지치지 않고 흥미 가질 수 있게 지원 자기주도 학습분야서 향상된 효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신기술이 삶을 변화를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교수법도 혁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성신여대에 따르면, 윤리교육과는 지난 29일 성신여대 소정관 소강당에서 '제23회 윤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세계·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단비교육연구'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단비교육은 적절한 때 내리는 비가 가뭄을 해결하는 것처럼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을 때 와서 물으면 가르쳐 주는 개인별 맞춤교육을 말한다. '공자(孔子)의 단비(timely rain)교육법'에서 유래하고 퇴계와 율곡 등 동양의 선현들이 시행한 교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단비교육은 주입식 교수법과 달리 교사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교육을 중시한다. 학생이 공부하다 친구들과 토론한 뒤 해결이 안 되면 스승에게 묻고, 교사는 학생이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성장한 만큼만 가르치므로 학생이 지치지 않고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연구자들은 단비교육법이 학생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주제적으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임을 강조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성신여대 학생과 교사가 공동으로 연구한 다방면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단비 교육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김민혜 윤리교육 17, 안선영 송양고 교사), '단비 교육이 중학생의 민주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박종은 윤리교육 17, 남유영 덕계중 교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단비 교육법이 자기주도 학습능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연구'(한정인 윤리교육 17, 이은주 영서중 교사), '현장 교사들의 응답을 중심으로 단비 교육 실시에 어려운 점'(김수빈 윤리교육 17, 양다인 구로고 교사), '단비교육이 국어와 학습자의 학습태도 및 수업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김정민 국어국문 15, 오묘한 정신여중 교사) 등이 발표됐다.

연구자들은 최대 100여명 이상의 학생과 수개월간의 수업연구를 바탕으로 양적·질적 설문을 통해 단비교육이 청소년들의 '민주적 상호작용',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 학습능력' 분야에서 향상된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윤용남 윤리교육과 교수는 "학생마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인 단비교육은 교과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민주시민교육, 인성·직업교육, 적성개발 등에 효과가 크다"며 "시범학교 등을 지정해 실험해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우리나라 전역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상명대 '시각 장애인 위한 사진교육' 모니터링

상명대학교는 문화예술형 교육기부 컨설팅단(단장 양종훈 교수)이 지난 30일 효창공원에서 진행된 (사)마음으로 보는 세상에서 주관하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사진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동아미술제 당선을 시작으로 올해 13회째를 맞는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인과 상명대 사진영상컨텐츠학과 학생 멘토가 한 조를 이뤄 참여토록 구성됐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멘토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사진촬영하고 있는 모습 /상명대학교

사진촬영을 하며 사진의 구도, 카메라 작동법, 사진 선별 등 기준에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사진 촬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한용수기자

# 인구 절벽시대 병력충원 묘안은?



문형철 기자

국방칼럼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병력충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시복무 예비군'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해당 주인공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대한민국 육군에는 이미 1000여명의 평시복무 예비군들이 복무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올해들어 '평시복무 예비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여·야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달 29일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올해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도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일반시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미국, 영국, 이스라엘,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에 자리를 잡은 제도다. 우리 군은 외국과 같은 평시복무 예비군은 운용하고 있지 않지만, '비상

근복무 간부예비군'이란 제도를 2014년 처음 도입(79명)했다. 올해는 1000여명의 하사 이상 소령이하의 예비군들이 연간 15일 가량 복무를 하고 있다.

복무 인원, 운용 부대면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 큰 발전을 해왔고, 실제로 이들이 속한 부대에서는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극도로 열악하다는 점과, 정책제도 발전 세미나에 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동원훈련의 의무(전역 1~6년차)도 끝난 연차초과자로 스스로 전투복을 꺼내입은 시민들이다. 군에 헌신하겠다고 15일간 군인이 되기를 자청한 셈이다.

그렇지만, 군 당국은 이들을 군 조직의 일원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군복이 떨어지고 전투화급이 떨어져 나가도 보급을 해 줄 수도, 사서 쓸 수도 없다. 묵시적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대어받는 피복이 고작이다.

평시에 전시동원 관련 물자관리와 서류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동원훈

련시 예비군 지휘와 교육훈련도 담당한다. 기간만 짧지 사실상 현역에 준한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할 사무실도 없고, 군복을 갈아 입을 탈의실도 없다. 칸막이 쳐놓고 대중 갈아입어야 한다.

군마트에 주류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신분임에도, 군마트 판매관은 "예비군에게는 팔지 않는다"며 냉정하게 내뱉는다. 사실 군마트에서 면세주류가 아닌 일반주류는 예비역 간부 신분만으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들을 부르는 호칭도 들쭉날쭉인데다가, 현역 간부나 기간병들은 계급이 높은 비상근복무자들을 보고도 경례도 하지 않는다. 군 당국은 예비역과 퇴역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예비역으로 지칭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비역 복무는 신성한 국방의 임무가 아니란 것인가.

그런데 120일, 150일, 180일 복무기간을 늘린다고 한들, 군복무의 질과 사기가 높아질 지 의문이 든다. 정책발전을 위한 오피니언들의 제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하지 않을까.

/captinm@metroseoul.co.kr

# 올해 대학가 핫이슈 1위 '조국 전 장관 딸 부정입학 의혹'

## 에드컴퍼스 설문조사

대학생 2명 중 1명은 올해 대학가 핫이슈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꼽았다.

에듀테크스타트업 에드컴퍼스는 지난 11월22일~25일까지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1340명을 대상으로 '2019 대학가 최고의 이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에드컴퍼스는 공식 SNS 채널 등을

통해 올해 대학가에서 주목받는 핫이슈를 대학생들에 질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사건 10가지를 선정했고, 이후 공식 앱과 SNS 채널에서 10가지 사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국 전 장관 딸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45.3%)을 꼽은 대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홍콩사태로 인한 중국 유학생과의 갈등'(12.7%), '명지학원(명지대) 파산 위기'(9%), '충남대 연구교수 화장실 몰카'(6.1%), '길거리 에어팟 금지-대학

교 황당한 풍군기'(5.7%) 순으로 응답했다.

이 외에도 '위안부는 매춘 연세대 교수 망언', '동국대 예체능대학 실기전형 수시합격 발표 오류', '난연계가 좋아 총신대 인천대 등 일부 교수 성희롱 막달', '서울교대 경인교대 청구교대 등 교대 단독방 성희롱 논란', '원룸 및 하숙 주인들의 기숙사 건립 반대', '전쟁나면 여학생은 위안부, 남학생은 총알받이 동의대 교수 막달'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 대학가 소식

### 수능 후 '19세 알바' 6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뒤 19세 아르바이트 구직자의 이력서가 6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알바몬이 올해 수능 전후인 10월 15일~11월 21일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아르바이트 이력서 빅데이터 37만여 건을 분석해 연령별 이력서 등록 추이를 본 결과에 따르면, 19세 연령의 이력서가 수능 직후인 1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548% 증가, 전월 동기 대비 6.5배 증가했다.

19세 알바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바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다.

19세 구직자가 가장 선호하는 알바(복수응답)는 일반음식점(30.1%)이었고, 이어 서빙(24.2%), 커피전문점(22.6%), 아이스크림·디저트(17.4%), 패스트푸드점(16.8%), 베이커리·도넛·떡(16.4%) 등 편의점(17.8%)을 제외하고 상위 1~8위를 모두 외식·음료 카테고리 아르바이트가 휩쓸었다.

/한용수 기자

###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기업탐방 진행

체험기회 제공·취업동기 부여

세종대학교는 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사업단)가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세종대 기업탐방 프로그램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기업탐방 체험기회를 제공해 취업동기를 부여하기 위

해 마련했다. 탐방 기업은 맥도날드 코리아(11월 28일), KIA자동차(12월 3일), CJ제일제당(12월 5일)이다.

탐방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 현장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기업 내부 투어 ▲ 탐방기업의 산업·직무·이슈 등을 이해하는 기업소개 등으로 일정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 건국대 안성신 학생, 한국유전학회 최우수논문 발표

건국대학교는 상허생명과학대학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중인 안성신(사진) 학생(지도교수 신순영)이 지난 21~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유전학 분야 대표적인 국제 학술대회인 'ICGSK 2019(한국유전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구두(영어)발표 부문 최우수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씨는 생명과학특성학과 학부 때부



터 연구 참여생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번 국제 유전학회에서는 신순영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불로화 천연물질을 기반으로 피부장벽 개선에 중요한 필라그린(Filaggrin)의 유전자 발현 분자 기전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한용수 기자